

# 옷차림으로부터 유래된 일부 로어성구들의 문화적배경에 대한 분석

최영기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민족에 따라서 옷이나 물건에는 자연풍토와 세태풍속적인 특성들, 경제생활의 특성이 함께 반영되는데 이런것들이 하나로 어울려서 옷과 물건의 민족적색채를 나타내는것이다.》

(《김정일선집》 증보판 제5권 280페이지)

력사적으로 형성된 민족성은 해당 나라 인민들의 고유한 생활방식과 언어, 관습, 세태풍속 등에서 뚜렷이 나타나며 그것은 문화정서생활에서의 차이를 낳게 하는 기본요인의 하나로 되고있다.

문화는 언어와 호상 밀접한 관계를 맺고있으며 력사적으로 형성된 민족성은 문화와 언어의 호상관계를 통하여서도 높이 발현된다.

이 글에서는 로씨야사람들의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이고있는 로어성구론적단위들가운데서 옷차림으로부터 유래된 일부 성구들의 문화적배경에 대하여 분석하려고 한다.

무엇보다먼저 신발과 관련되어나온 로어성구들을 분석하여보자.

로씨야민속학자들의 연구자료에 의하면 과거 로씨야사람들의 일상생활에서는 옷차림이 엄격히 법규화되어있었다. 그리하여 모든 사람들의 옷차림에서는 해당 사회에서 자기의 신분에 해당한것만이 허용되였다. 여기에서 가장 전형적인것이 신발이였다. 비록 사람들의 신발은 각양각색이였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사람들의 사회적신분을 정확히 알아볼수 있는 정도에서 허용된것이였다.

귀족들이 신던 유일하고도 《점잖은》 신발은 목이 있는 신발(сапоги)이였고 평민들이 신던 신발은 발바닥이나 감싸도록 주로 피나무와 같은 넓은잎나무의 속껍질로 삼은 초신(лапти)이였다. 따라서 로어성구들에서는 이러한 계급적대립관계를 반영한 단어들이 《сапоги, лапти》가 쓰이게 되였다.

레: - Правда в лаптях, а кривда хоть и в кривых, да в сапогах.

(진리는 초신을 신은 사람들속에 있고 허위는 속비뿔어진 놈들, 그것도 목이 있는 신발을 신은 놈들속에 있는 법이다.)

- Лапоть знай лаптя, а сапог сапога.

(초신이 초신앞에서, 장화는 장화앞에서 태연한 법이다.)

- И мы не на руку лапоть надеваем.

(우리도 손에 신발을 신기지는 않는다.)

- Лапти плетешь, а концов хронить не умеешь.

(초신은 삼는데 끝맺을줄은 모른다.)

лапти плести 말이 서툴다, 서툴게 말하다

переобуться из сапога в лапти 령락하다, 몰락하다, 파산하다

в лапоть звонить 아무 일도 하지 않고있다

не лаптем щи хлебать 《속된말》...한 측면에서 다른 사람들만 못하지 않다

лапти откинуть 죽다

что-то в сапожках ходит 《속, 낚》 값이 하늘 높은줄 모른다  
два сапога пара 가재는 계편, 초록은 동색

얼핏 보기에 의미적 연관성이 전혀 없는 단어들이 결합되어 만들어진 성구표현 《сапоги всмятку》는 바로 《허튼수작, 빈소리, 무의미한것, 공연한 짓, 쓸데없는 일》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성구들이 일상생활에서 적극적으로 널리 쓰이고있다.

레: - Все эти рассказы о духах и привидениях сапоги всмятку.

(령혼이니 유령이니 하는 이야기는 다 허튼소리이다.)

- Я их хорошо знаю — два сапога пара: оба ленивы.

(난 그자들을 잘 하는데 신통히도 똑같은 놈들이요. 두놈 다 건달군들이란 말이요.)

- Дорога нынче рыбка-то стала, в сапожках ходит.

(올해에는 물고기값이 굉장히 비싸져 천정부지로 뛰어오른다.)

- Ну, секрет ихний мы сразу переняли. Мы тоже не лаптем щи хлебаем.

(자, 그들의 비밀을 우리가 즉시에 가로채냈네. 우리도 그런 면에서는 다른데만 못하지 않거든.)

다음으로 의상과 관련되어나온 로어성구들을 분석하여보자.

우선 단어 《кафтан》이 들어있는 로어성구들이 있다.

《кафтан》(까프탄)은 두루마기 비슷한 로씨야의 옛 남자옷을 이르는 말로서 이 단어가 들어있는 성구들은 대체로 낚투의 빗갈을 가진다.

레: кафтан с подкладкой 거부, 돈이 매우 많은 사람

Пуст карман, да синь кафтан. (주머니는 비었어도 푸른 까프탄만 둘렀다. — 돈은 없어도 옷을 짙 빼입은 사람을 이르는 말)

служить по кафтану 돈을 주는데 따라 섬기다, 돈을 내는데 맞게 봉사하다

《тришкин кафтан》(트리슈까의 까프탄)이라는 표현은 이. 아. 크릴로프의 우화(1815) 제목으로부터 나온것으로서 아직도 적극 쓰이고있다.

우화의 주인공 트리슈까는 까프탄의 팔꿈치가 터지자 소매를 1/4씩 똑똑 잘라 바늘로 기우고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옷자 이번에는 옷자락을 잘라 소매를 늘구다가 결국은 옷을 못쓰게 만든다. 이로부터 어떤 부족점을 고친다는것이 오히려 다른 잘못을 범하게 하는 경우를 두고 하는 말로서 《혹 떼려다 혹을 하나 더 붙이는 격, 굶어부스럼》이라는 조선속담과 류사하다고 볼수 있다.

레: На одной избе, вместо крыши, лежали целиком ворота; провалившиеся окна подпёрты были жердями, сташенными с господского амбара. Как видно, в хозяйстве исполнялась система Тришкин кафтан: отрезывались обшлага и фалды на заплату локтей.

(한 농가에는 지붕대신 아예 대문짝이 올라가있었고 자빠진 창문은 주인의 창고에서 끌어낸 장대기들로 받쳐져있었다. 보건대 집안살림이 팔꿈치 꿰진데를 대려고 소매 부리와 옷자락을 잘라내는 《트리슈까의 까프탄》방식으로 운영되는것 같았다.)

또한 단어 《рубашка》와 관련된 성구들이 있다.

단어 《рубашка》(루바슈까)는 기원상 단어들인 《рубить》(자르다, 베다), рубище(헛 옷

옷)》로부터 파생된것이라고 볼수 있는데 고대루씨에서는 《한심한 옷, 대강 짠 천》을 《руб》라는 단어로 나타내곤 하였다. 이 옷은 자락이 무릎까지 내려오고 앞목깃은 터쳐져있었으며 팔소매 역시 매우 길어서 일을 하려면 그것을 거두어올리지 않고서는 몹시 불편하였다. 이런 관습으로부터 나온 표현이 《засучив рукава(팔을 걷어올리고, 열심히), спустя рукава(어름어름, 되는대로)》이다.

이처럼 루바슈까가 특별한 속옷이 없이 우에 걸치는 적삼이라는데로부터 《своя рубашка ближе к телу(자기 옷이 몸에 제일 꼭 맞는다), снять последнюю рубашку(빈궁의 나락에 떨어구다), оставить в одной рубашке(거지로 만들다), родиться в рубашке(신수가 좋다, 복을 타고나다)》 등과 같은 표현들도 나오게 되었다.

레: - Потом обработали рану, врач осмотрел её внимательно, сказал, что солдатик в рубашке родился. Плечевой сустав не нарушен, а только задет осколком. (다음에는 상처를 처치했는데 의사는 상체를 주의깊게 살피고나서 병사가 신수가 좋다고, 상박관절은 상하지 않고 다만 파편이 스쳐지나갔다고 말하였다.)

- Генерал всё больше убеждался в том, что Красиков начал относиться к работе спустя рукава, занятый какими-то другими – несомненно, сугубо личными делами. (장령은 그 어떤 다른 일, 의심할바없이 극히 사사로운 용무에 다망한 크라씨꼬브가 사업을 어름어름 대하기 시작했다는것을 더더욱 확신하였다.)

- Плотников оттягивал тот момент, когда надо окончательно согласиться и засучив рукава ломать устоявшиеся порядки, привыкать к новой технике, к новой технологии. (пл로뜨니꼬브는 최종적으로 동의하고 틀에 박힌 질서를 이악하게 마스며 새 기술, 새 공학에 익숙되어야 할 바로 그 시각을 질질 끌었다.)

다음으로 모자와 관련되어나온 성구들을 분석하여보자.

모자를 나타내는 단어들가운데서 가장 전형적인것이 바로 《채양이 없고 부드러운면서도 파스한 모자》(шапка)이다.

로씨야사람들의 옛 관례에 의하면 남자들과 출가한 녀성들은 반드시 머리쓰개를 착용하도록 되어있었다. 만일 남자에게서 모자를 벗기면 그것은 그 사람을 망신시킨다는것을 의미하였다. 때문에 시장에서는 빗진 사람들에게서 모자를 공개적으로 벗기곤 하여 그들에게 수치감을 안겨주곤 하였으며 여기로부터 일부 성구들이 나오게 되었다.

레: дать по шапке 《속된말》 ①때리다 ②직무에서 쫓아버리다, 면직시키다, 해고하다  
получить по шапке 《속된말》 매를 맞다; 직무에서 쫓기다, 면직되다, 해고되다

한편 모자가 사람들사이의 친숙정도와 신분관계, 작별의 뜻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된다는데로부터 일부 성구들이 나왔다.

레: шапочное знакомство 모자나 벗어 인사할 정도의 사이, 꾀났이나 아는 사이  
ломать шапку 《속된말》 굽신거리다, 쪼물쪼물대다

к шапочному разбору прийти 헤여지려고 모자를 손에 찾아질 무렵에 나타나다,  
헤여질 무렵에야 오다

이러한 성구들은 높은 표현성을 가지고 쓰이고있다.

레: - Одевайтесь, матушка, а то к шапочному разбору.

(어머님 옷을 입으십시오. 이러다간 다 끝날무렵에 가닿겠습니다.)

- А ребятишек чем кормить, если тебе по шапке дадут с завода, об этом молодцы эти думают или нет? (그래 만일 자네를 공장에서 해고해버리면 자식들을 뭘 먹여살릴텐가, 이런걸 이 급사들이 생각하나 안하나?)

- Его братья, однодворцы, только что не молились на него, шапки перед ним издали ломали, гордились им. (그의 형제들은 자그마한 땅땸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앞에서만은 꺾쩍 못했는데 멀리에서부터 그를 보면 굽신거렸고 그를 몹시 자랑스럽게 여기었다.)

다음으로 옷장식과 관련하여나온 성구를 분석하여보자.

여기에서는 성구 《ходить козырем》을 들수 있다.

옛 시기에 《식자깨나 건사한》사람들과 관리들은 자기들이 평백성들과는 다르다는것을 보여줄 목적으로 자기의 옷옷목뒤깃에 금, 은 또는 진주로 수를 놓은 특이한 무늬장식을 붙이곤 하였는데 이것을 바로 《kozyрь》라고 하였다. 이 무늬장식을 붙인 대귀족들은 국가급의 경축행사나 짜리의 행차에서나 볼수 있었다. 금은실로 수를 놓은 황홀하고 독특한 무늬장식은 그만큼 그들에게 어마어마하면서도 위엄있는 자태를 부여해주었다. 바로 이러한 옛 관례로부터 지금까지도 이 성구는 《위풍당당하게 걷다, 거드름을 피우다, 뻐기며 다니다, 우쭐대다》라는 의미로 널리 쓰이고있다.

레: Он вошёл козырем, бросил шапку на кровать, отдулся и стал распоясываться.

(그는 거드름을 피우며 들어와서는 침대에 모자를 획 벗어던지고 길게 숨을 쉬더니 헐떡이를 풀기 시작하였다.)

우리는 로어성구들이 나타내는 여러가지 뜻빛갈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켜 학생들을 풍부한 로어지식을 소유한 인재들로 키워내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